

# 한자리에 모아보는 옛책속의 그림들

## 한국에서가클럽 주최 '朝鮮古版畫展'

조선개국 600년을 기념하여 조선시대 古書 속의 판화들만을 전시하는 '朝鮮古版畫展'이 8월 12일부터 24일까지 경복궁 전통공예관에서 열렸다. 한국에서가클럽(회장 여승구)이 주최한 이 전시회에 출품된 판화는 총 435점.

교육·종교·풍속·자연·군사·인물·문양·지도 등 각 분야의 판화들이 망라된 이 전시회에서 단연 주목을 끈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판화가 수집매 수록된 「턴로력명」.

등장인물들의 人相특징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고 옷도 한복을 입혔으며 등장하는 천사의 모습이 우리나라 옛이야기 속에 나오는 선녀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단연 이목을 집중시켰다.

「턴국에 들어가다」란 그림(사진1)은 불교적 또는 도교적 분위기까지 느끼게 하는데, "이는 근대적 자각이 없이는 불가능한 자주적인 표현이므로, 기독교문학의 번역본이기는 하지만 회화의 표현면에서 보자면 민족주체적인 창작정신을 담아 놓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천도교의 최제우와 최시형의 일생을 52매의 목판화로써 요약한 「繪像靈蹟實記」(1915, 待天教總部 刊)의 그림(사진2)들은 「턴로력명」의 그것들을 능가하는 구성과 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태호(전남대 미술사)교수는 石芝 蔡龍臣이 그린 것으로 고증해 내기도 했다.

안동에 있는 太師廟에서의 안동 권씨 시조 權幸의 제례를 마치고 자손들 사이에 베풀어진 연회를 주제로 한 판화인 「太師廟祭飲福宴」(사진3)은 당시의 전형적인 契會圖 양식에 따라 그려져 있으며, 기록화로서의 판화로는 현존하는 것들 중 가장 오래된 고판화(1613년 10월)로 추정되고 있어 관객들의 발길을 오래 머물게 한 작품.

그밖에 불교판화본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4책의 방대한 판화집인 「釋氏源流」, 정조가 사도세자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하여 단원 김홍도로 하여금 원화를 그리게 한 만큼 완숙한 작품으로 평가되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 조선시대 초기의 판화에 나타나는 회화수준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한 주제를 가진 '연작' 형식의 판화집으로서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받는 「行實圖版畫」, 연암 최익현(1833~1906)의 항일 행적을 보여주는 연작 석판화로서 구한말에 제작된 민영환의 '현죽도'에 이어 일제초기 금서로 지목되는 등 "오늘날 민중미술의 선배격"인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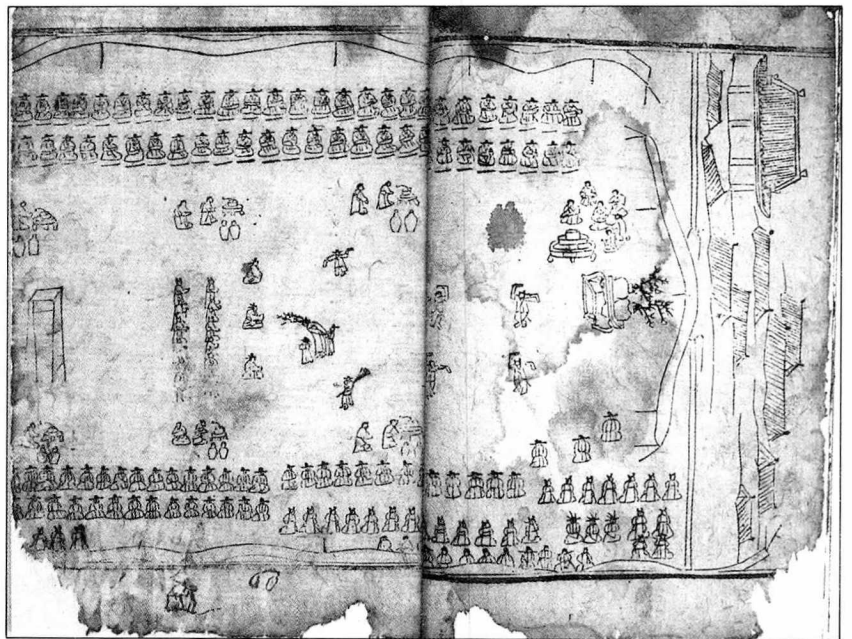
星錄」, 6면에 걸쳐 연결되어 조선시대에 간행된 전쟁도 판화로서는 가장 긴 크기를 자랑하고 있으며 민화에서나 볼 수 있는 삼국지나 수렵도의 형식을 절충시킨 화풍을 지니고 있어 '민중판화'로서의 전형적인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 「海藏實記」 등이 특히 손꼽히게 소중한 작품들로 평가되었다.

### 판화의 특성 살릴 수 있는 분야는 출판

판화는 그 시대의 인쇄문화와 회화적 기량에 좌우되는 복합예술. 따라서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사용했으며 회화의 역사 또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고판화는 그 작품의 양과 질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 판화를 전문영역으로 삼는 미술사가 없으며, 고판화를 한국미술사의 한 영역으로 삼아 그 역사와 내용을 정리해 낸 저술도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회는 "한국미술사의 사각지대에 대한 일차자료의 집대성展"이라고 유홍준(영남대 미술사)교수는 평가했다.

판화가 '미술사의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이유는 "복제성이라는 특징이 곧 희소성의 부재라는 예술품으로서의 한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광남신(홍익대 판화과)교수는 말한다.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판화가 그것 자체로서 감상학적 기능으로 제작된 것은 사진술이 발명된 이후. 즉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판화에서 알 수 있듯, 판화는 삽화 내지 插圖로써 제작된 것이며, 같은 삽도라도 초상화, 山圖, 지도, 천문도, 儀軌圖, 契會圖, 역사적 사실의 도해, 경전의 도해, 도표 등의 쓰임새를 위한 부수적 역할만을 담당하다가 그 기능을 사진이 대체하게 되면서 예술로서의 독자적 입지를 확보하게 된 것.

실용적 측면에서의 판화는 현재 실크스크린 기법, 화폐와 우표 제작 때의 잉크레빙 기법, 출판에 있어서는 석판술에서 발전한 옴셋 인쇄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출판 분야에서의 판화 이용은 84년 풀빛출판사의 판화시선시리즈에서 시와 판화가 행복하게 만남으로서 "오류행실도"나 「턴로력명」의 맥을 이은 이후 시대 상황과 관련 맺으며 폭발적으로 증가해 창작과 비평사, 실천문화사, 청사, 일월서각 등의 출판사에서 책표지에 판화를 사용하는 붐이 일어나기도 했다. 박암중(대우전통대 광고디자인과)교수는 "목판화의 특성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분야는 출판"이라고 전제된 뒤 신선한



위왼쪽/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판화가 다수 수록된 「턴로력명」 중 「턴국에 들어가다」. 번역본이지만 등장인물의 인상이나 복장이 '우리식'이어서 이색적이다.  
위오른쪽/ 최제우가 효수당하는 장면인 「觀德堂受刑圖」. 당시 사회의 의상, 제도, 신앙, 풍속 등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아래/ 안동 권씨의 시조인 권신의 제례를 마치고 자손들 사이에 베풀어진 연회 모습을 그린 「태사묘제음복원」.

느낌과 친근감을 주는 목판화가 동화책에 많이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 책은 여러 장인들의 합작 예술품

이번 전시회를 마련한 한국에서가클럽 회장 여승구씨는 "책은 그 속에 담긴 뜻을 읽기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장인들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예술작품"이라며 "이번

전시회가 우리 책문화 연구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그 소감을 밝혔다.

— 김중식 기자